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9:00AM &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9:00AM & 11:00AM
- 유년부(1-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현장예배, 온라인
11:00 AM
- 日本語 礼拝 / 현장예배, 온라인
1:0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열왕기하 6:8-2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9-15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Peter Joo **주성필 목사**

무엇이 보이시나요?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주기도문3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무엇이 변치 않아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핑계

Excuses



주성필 목사 / Rev. Peter Joo

얼마 전 아들의 시즌 마지막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시즌이 짧았지만, 마지막 경기만큼은 아빠도 꼭 와 줘야 하는 바람이 있는지, 몇 주 전부터 엄마를 통해 이번 경기에는 꼭 와 달라고 은근히 청탁 아닌 청탁을 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들이 뛰는 풋볼 경기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일과 시간이 겹쳐서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있어도 피곤한 몸 때문인지, 경기장에 앉아서 늦은 시간까지 2~3시간이 넘는 경기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에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뤘는데, 리그 챔피언십 경기에 아빠가 오지 않은 게 아들은 못내 서운했나 봅니다. 사실 그 시간에 저녁에 있을 선교 훈련을 준비해야 했고, 썩 좋지 않은 몸 상태로 경기장에 앉아 있으면 왠지 더 아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상황은 아내와 아들이 보기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릴 뿐이었나 봅니다.

핑계란 무엇일까요? 핑계는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내키지 않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이나 사람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핑계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와와 자신은 유혹한 뱀을 핑계로 삼았고, 아담은 하와와 심지어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깨끗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핑계의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며 살아갑니다. 그 핑계가 정당한 이유가 되어 그냥 넘어가질 때도 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알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핑계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는 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코로나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핑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일,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핑계는 그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혹시 핑계로 놓친 일들이 있다면 다시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다음 시즌 아들이 뛰는 경기에는 더 이상 핑계 대지 않고 가서 힘껏 응원해 줘야겠습니다.

My son played his last football game of the season not too long ago. It was a short season due to Covid, and he wanted me, his dad, to be at this last game of the season. For a few weeks, through my wife, I have been asked over and over to be at this game. Truthfully, I was never able to attend any of my son's games in the last 3 years. There was always work to do and overlapping of schedules. Even if I found the time, my body was too tired to sit 2-3 hours in a stadium late at night to watch a game. This was not an easy thing for me. So, once again, I put it off to next time. However, I think he was very sad that his dad could not show up to his league championship game. On that night, I had to prepare for missions training. I was also not feeling well, and I didn't want to get worse by sitting in a stadium. However, when I explained the situation, it sounded like nothing more than excuses to my wife and son.

What is an excuse? Dictionary definition of excuse is a reason or explanation put forward to defend or justify a fault or offense. As you well know, excuses in the Bible began in Garden of Eden. After eating frui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bidden by God, the serpent became Eve's excuse. Adam used Eve and even God to hide his wrongdoing. What would have happened if Adam recognized his fault and asked for forgiveness? I think we have a DNA in us making excuses that began with Adam and Eve.

We make excuses for things that we want to avoid in our lives. Sometimes, these excuses become justified, and we may overlook. Other times, others can clearly read what's in our hearts, although nothing is spoken. Sometimes, because of excuses, we lose opportunities and fail. Especially, nowadays, we are quick to give the excuse 'because of Covid'. Perhaps, we need to think carefully and see if we are hiding behind this excuse of Covid. However, on the last day when we stand in front of God, can we give Him excuses? We cannot possibly give excuses to God who knows everything about us and sees the center of our hearts. Today, our day, work, and meeting of people are special opportunities that God gave us. Excuses will make us lose opportunities. If you have lost an opportunity because of excuse, maybe you can try again? Next season, I will not make excuses but go to my son's game and cheer for him.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주성필 목사

무엇이 보이시나요? 열왕기하 6:8-23

1.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별명으로 불러 주셨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나눠 봅시다.

2.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렸던 엘리사 선지자(왕하 13:14)가 도단 성읍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군대에게 포위 당하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 봅시다.
 - 1) 하나님의 _____ 과 _____ 를 보아야 한다.
 -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군대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대답과 기도의 내용(16-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환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고, 현실의 난관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 두려움의 이유:
 - (_____)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15-16절)
 - (_____) 지키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17절)
 - 2) _____ 가 필요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18-20절)
 -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눈이 어두워진 아람군대를 도단에서 12마일 떨어진 사마리아성까지 인도하여 갔습니다. 엘리사가 아람군대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기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 믿음으로 본 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면 누구인지 나눠 봅시다.
 - 3) 하나님께 받은 _____ 를 보아야 한다.(21-23절)
 - 이스라엘의 왕은 끌려온 아람군대를 치려고 한 반면,(21절) 엘리사는 그들을 달리 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포로를 대하는 방법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었던지 나눠봅시다.

3.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을지 나눠 봅시다.

적용하기



■ 적용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베델 탐방 - 세 번째

준기세 밀지 아니하면 준기세 못서리

마침내 온라인으로 열방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0주간의 과정인 선교 훈련부터 기도 모임까지, 줌 (Zoom) 미팅으로 선교사님을 만나 그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교지로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며 찾아가 봅시다.

과달라하라 선교팀

저희는 매주 수요일 Zoom으로 모여 에스파날 자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단기선교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준비한 발표를 통해 사역지와 사역에 대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또한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5일 성경을 필사하고, M 미팅을 통하여 처음으로 허익현/김영중 선교사님을 만나 현지 사역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원이 오프라인 선교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이제 10주 과정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응원 영상을 보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선교의 길"이라며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과달라하라를 위해 계속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담당: 박지학 집사/김홍식 목사



베트남 선교팀

10주간 담당 목사님과 9명의 팀원들이 온, 오프라인을 오가며 은혜 속에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영상 메시지로 팀원들과 QT를 나누면서 "아멘"하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선교 훈련, 영상 편지, 선교지 스테디, M 미팅을 통한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게 생소한 온라인 선교가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면이 없는 선교를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주어진 선교 운영 플랜이 효율이 있을까'하는 우려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선교 플랜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면서 기도가 늘기 시작했으며, M 미팅 후 현지 선교사님과 이곳 팀원들의 마음이 베트남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는 것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마친 후, 성결/양성 선교사님은 베델 교회를 향해 "항상 염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 담당: 정재홍 집사/김형균 목사



니카라과 선교팀

믿음의 태도 선교의 고도, Nicaragua Para Cristo (니카라과를 주님께로)! 니카라과 선교팀은 4가정과 이충경 목사님이 한 팀을 이루어 중미에 위치한 니카라과를 마음에 품고 모이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공간에 특별 기도 장소를 마련하고 팀워크를 위해 팀 셔츠를 맞춰 입고 컴퓨터 앞에 모입니다. 두 번의 선교 훈련과 니카라과 현지에 대한 팀원들의 스테디 발표, 짧지만 선교사님과 영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니카라과 현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스페니쉬로 울동 찬양을 연습하여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됐지만, 잊혀지지 않고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힘이 난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작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굳게 닫혀있는 니카라과의 국경이 하루빨리 열려 현지인들에게 스페니쉬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담당: 천승헌 집사/이충경 목사





이달의 셀목자

<화평 목장/늘푸른1셀> 임명우 집사, 임정자 권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셀목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로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던 중 베델교회에 정착하면서 화평 목장 늘푸른1셀 셀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임정자 권사와 슬하에 2남 1녀가 있는데 모두 분가했고, 지금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셀목자로 임명받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얼바인으로 이사 온 집에서 가까운 베델교회를 방문했다가 따뜻한 교회 분위기에 등록했고, 출석한 지 3년 만에 셀목자 임명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자신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날까지..."라는 분당 안에 표어가 저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분가를 많이 한 귀감이 되는 셀인데요, 과정을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셀목자 교육을 받는 중에,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셀은 끊임없이 분가하는 셀이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셀식구들과 첫 만남은 어색하였지만 금새 가까워졌고, 2년 후에는 A집사님이 분가를 해서 새로운 셀을 만들어 셀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셀식구인 B집사님에게 셀을 인계하고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늘푸른셀을 만들어서 1년 만에 셀 사역팀에서 우리 셀식구 가운데 C집사님과 D장로님을 다른 셀목자로 분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A집사님과 D장로님의 셀이 다시 분가를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델의 셀목자와 처음 결혼(?)한지 8년 만에 네 명의 자녀와 두 명의 손주를 본 할아버지 셀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증조할아버지 셀목자가 되는 꿈을 가져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종입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서 셀목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목자로 섬기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셀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늘푸른1셀의 자랑은 9명의 셀식구 모두 셀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식구들이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차례로 셀목자가 되어서 직접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큰 자랑입니다.



그것마저도...

"또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또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그리고 자격이 되나? 라고 묻게 되는 셀목자는, 당연하지만 한편으론 매번 점검해야 하는, 도전을 주는 자리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똑 부러지지도 않으며, 굳건한 믿음에서 있는 것도 아닌 저는 "셀목자 맞아?"라 여길 정도로 사랑도, 말씀의 지혜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흐름이라는 핑계로 저는 이 모든 것의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오를 만회하겠다는 단순하면서도 위험한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섬기게 되었습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새롭게 만나게 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저와 이웃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하도

록 하였고, 셀목자로서 해야 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를 셀식구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매주 만나는 셀모임은 은혜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이들을 만나 함께할 수 있음 자체가 감사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 또한, 은혜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함께 고민하며 이어지는 교제 시간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마음 모아 기도하고 응원하는 셀모임이



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교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던 우리를 한 셀로 모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며 이 땅에서의 천국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에, 소망으로 동참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승미진 자매



포토 에세이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지난 토요일(4/17)에 풍성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 등록 가족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 일이 많아 여유 없이 바쁜 생활을 하던 중 감사하게도 Visiting Scholar 기회를 얻어 지난 연말 이곳 얼바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다행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베델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한요 목사님의 영성 깊은 말씀이 예배 때마다 마음에 와닿았고, 함께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담임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로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받으며 베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16주 성경 통독에 도전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였는데 많은 분의 열정 어린 수고와 정성에 감동받았고, 환영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천국 잔치는 얼마나 더 기쁨이 넘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베델교회에 잘 정착하여 저희 가족 모두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인훈, 이윤경 성도



아버지의 찬송이 내 찬송 되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던 찬송입니다. 가족 중 혼자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후, 장로님으로 섬기시던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면 항상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해 줄 건 기도밖에 없다고 하시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와 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어도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도 장로님으로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행복하게 사셨던 아버지의 믿음이 생각나 저 역시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며 두렵고 괴로울 때 아버지가 부르시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며 손잡고 위로해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늘 돌보시는 아바 아버지 되시며 언제나 손잡아 위

로해주시는 주님이 항상 저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 손 놓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항상 찬송과 기도 속에 행복해하셨는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알게 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혜경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베델위십/셀: 박경철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은주 목사
- 예수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수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 예수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 유년부: 김재은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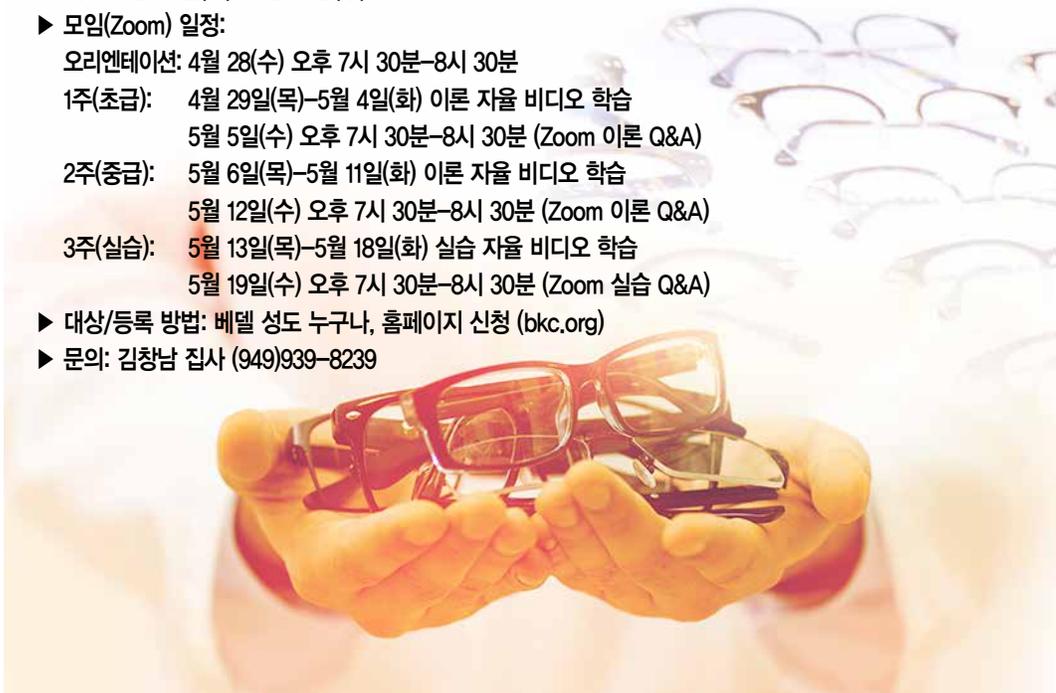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훈란

사역광고

안경 선교 온라인 훈련생 모집

안경 선교 사역은 시력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는 선교 현장의 현지인들에게 시력 검사를 통해 안경을 만들어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교회에 모여 선교지에서 안경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안경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시대에 걸맞은 옷을 입으라는 선교 박람회에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안경 선교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눈의 구조, 시력 이상 및 측정 검사에 대한 이론과 선교 현장에서 직접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실습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훈련을 통해, 곧 열리게 될 선교지에서 안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지인들에게 안경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방법: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비디오프 자율 시청하고 Zoom을 이용해서 Q&A 진행
- ▶ 기간: 4월 28일(수) - 5월 19일(수)
- ▶ 모임(Zoom) 일정:
 - 오리엔테이션: 4월 28(수) 오후 7시 30분-8시 30분
 - 1주(초급): 4월 29일(목)-5월 4일(화) 이론 자율 비디오 학습
5월 5일(수) 오후 7시 30분-8시 30분 (Zoom 이론 Q&A)
 - 2주(중급): 5월 6일(목)-5월 11일(화) 이론 자율 비디오 학습
5월 12일(수) 오후 7시 30분-8시 30분 (Zoom 이론 Q&A)
 - 3주(실습): 5월 13일(목)-5월 18일(화) 실습 자율 비디오 학습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8시 30분 (Zoom 실습 Q&A)
- ▶ 대상/등록 방법: 베델 성도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 (bkc.org)
- ▶ 문의: 김창남 집사 (949)939-8239



예배 봉사자

강단꽃(4,5월) | 4/25: 강문구 5/2: 노성애 5/9: 홍성아 5/16: 이애숙, 이충경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현장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4부)는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신청 링크>

- 주일 성인 및 예살 예배 참석 신청: checkin.bkc.org
- 주일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참석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1 현장예배 참석 사항에 동의 후 신청하기
2 참여하시고 싶은 예배 선택
3 교적번호 적기
기억이 나지 않을 시에는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척이나 전도 대상자 신청일 경우는 'Guest'로 적어주시고 '특이사항'란에 바라는 사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4 핸드폰 번호 적기
'-' 같은 문자 표기나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세요. 예) 1234567890
5 Email은 옵션
6 성과 이름 적기
7 부서 선택하기
예) 장년부 Adult *성인 예배를 신청하실 때 교육부서를 선택하셔도 주일학교 예배에 등록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주일학교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면 교회학교 신청 링크로 가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신청 확인 방법>

신청 후 입력하신 전화 메시지에 바로 '사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갑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면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 방법>

사전 신청 완료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베델 수요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7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4월 28일(수) 오전 10시

◆ 교사 컨퍼런스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이후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길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5월 16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5월 23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강사: Sean Choi 목사(북가주 세계선교침례교회 차세대 사역자)

문의: 각 부서 전도사 또는 이진아 전도사 (951)454-2188

참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bkc.org

◆ BYM 중등부 아침 QT 모임(Monday Weekly Morning Devotional)

매주 월요일마다 BYM 영어 중등부에서는 아침 7시에 Zoom을 통해 아침 QT를 합니다. 자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YM 중등부 Sports & Discipleship 청소년들을 위해 스포츠와 제자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Sports & Discipleship I' 모임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교회학교 5월 크래프트 패키지 픽업 5월 한 달간 주일 예배 후 사용할 크래프트 준비물들을 교회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1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교회 파킹장

◆ 예살 Family Friday Night 예살 청년들의 주중 현장예배인 Family Friday Night가 현장 예배로 드러집니다. QR 코드를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임마누엘 채플

문의: 서찬석 목사 (714)869-5093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니카라과 편) 니카라과 박우석, 이현숙 선교사님을 Zoom으로 만나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참가 방법: 5월 2일(주일) 오후 2시-3시, Zo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문의: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안경 선교 온라인 훈련 모집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온라인 영상강의와 화상 모임(Zoom)으로 진행합니다. <주보 7면 참고>

일시: 4월 28일(수)- 5월 19일(수) 오후 7시 30분

대상/등록 방법: 베델성도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

문의: 김창남 집사 (949)939-8239

◆ 한국학교 온라인 여름 캠프 등록 베델 한국학교가 흥겹고 재미있는 2021년 여름 캠프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흥미 있고 실감 나게 체험하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등록 기간: 4월 5일-5월 9일

등록비: \$290 (5월 9일 이후부터 \$320)

기간/시간: 7월 12일- 8월 5일(매주 월-목, 4주간) 오전 10시-오후 12시

대상: Kindergarten(만 5세) 이상의 학생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미디어팀 봉사자 모집 주일 온라인과 현장 예배의 음향과 조명, 카메라로 섬겨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하신 모든 분은 미디어팀에서 훈련과 교육을 해 드립니다.

문의: 박주남 전도사 (949)543-8336

◆ 위로해주세요 故 장정숙 권사님(이원 집사의 모친)께서 4월 22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편집장: 유미경 권사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What Do You See?

2 Kings 6:8–23

1. Think about what nickname you would like God to call you by, and please share your reason for this.

Apply to Life



2. While prophet Elisha, who was call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2 Kings 13:14), was staying at the city of Dothan, he was surrounded by the army of Aram (Syria) and in danger. Let's examine what Elisha, a man of God, saw despite the danger facing him.

1) We must see God's _____ and _____.

- The reason that Elisha's servant was afraid of the army of Aram can be gleaned Elisha's answer to him and prayer (v. 16-17). Please discuss the reasons for the servant's fear, and what present difficulties make you afraid.

● Reasons for being afraid:

- (_____) seemed greater than God (v. 15-16)

- Could not see the horses and chariots of fire protecting (_____) (v. 17)

2) We must see the people who need _____. (v. 18-20)

- In order for Israel to witness God's power, Elisha led the blinded army of Aram (Syria) 12 miles away to Samaria. Why did Elisha pray for Aram's army to be blinded, and who was the prayer really for?

- Those of us who have seen by faith must pray for others around us. Please share if there's anyone that come to your mind.

3) We must see the _____ we received from God. (v. 21-23)

While the king of Israel wanted to attack the army of Aram that was led astray (v. 21), Elisha did not agree. What did Elisha urge the king to do with the prisoners, and what is the reason for this? In the same vein, if you are not generous and kind to someone, what might be the reason?

3. The horses and chariots of fire signify God's divine protection. Have you ever felt God's divine protection at a time of difficulty and danger? Let us share how we can live under God's protection.